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 훌륭한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 뭔가를 만들려는 참인데, 쇠붙이가 저 혼자 화로에서 뛰어 오르며 “나는 꼭 명검(名劍)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한다면 대장장은 불길한 쇠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어떤 이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다면 조물주는 반드시 불길한 인간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제 천지를 큰 화로로 여기고 조물주를 훌륭한 대장장으로 여긴다면 무엇이 되든 어디로 가든 괜찮지 않겠는가? 죽으면 편히 잠들고 살아 있으면 깨어날 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 자기 자신을 자연의 흐름에 내맡기는 자세이다. 자연적 본성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것이란 참된 삶에 위배된다. 그러기에 옛날의 진인(眞人)은 삶을 새삼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새삼 미워하지도 않았다. 태어났다고 좋아하지 않았고 죽어 간다 해도 거역하지 않았다. 인위적인 행동으로 자연 그대로의 천성(天性)에 무엇인가를 덧붙태려 하지도 않았고 분별하는 지식으로 자연의 도(道)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실로 진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 It is future, when privately owned robots have become common. Andrew is the robot who was bought and hired by the Martin family. By mechanical errors, he feels emotions that are not initially programmed in his system. Now, he wants to become a human being and appeals to a court for its legal decision.

**JUDGE:** Andrew Martin. Step forward, please. So, Mr. Martin, you would like us to pass a bill declaring you a human being.

**ANDREW:** Yes. Specifically, I would like the right to marry a human being.

**JUDGE:** I see. But we have to face the undeniable fact that no matter how much you may be like a human being, you are not part of the human gene pool. You are something else, something artificial.

**ANDREW:** What about all the real people who have bodies full of artificial devices? You yourself, sir, have one of the artificial kidneys I helped invent, don't you? Are you not in some way artificial, at least in part?

**JUDGE:** In part, yes.

**ANDREW:** Then, I'm human, in part.

**JUDGE:** Mr. Martin. You may have feelings like us. However, you're still equipped with a positronic brain\* that makes you immortal. Society can tolerate an immortal robot, but we will never tolerate an immortal human. It arouses too much jealousy, too much anger. I'm sorry, Andrew. This court cannot and will not validate your humanity.

\* positronic brain: 양전자(陽電子) 두뇌.

[다] 인간이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 세계는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이때 ‘세계’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세계’와는 대립된다. 인간에게 이 세상이 ‘세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의 경우와도 비할 바 없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러하다. 일찍이 흄볼트는 “언어가 곧 세계관”이라고 하고, 언어는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으로부터 독립된 자립적 실체이며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성장하는 개개인을 특정한 세계관으로 이끌어 준다고 보았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세계에 대하여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언어로 표현될 때만 세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언어를 통해 세계가 표현될 때 비로소 언어는 고유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근원적으로 인간적이며,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또한 언어에 근거한다.

[라] 포유동물의 후두(喉頭)는 목 위쪽에 자리하는데,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들은 분절 발음에 필요한 범위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이용해 소리를 변동시킨다. 인간도 대략 18개월에서 2살이 될 때까지는 후두가 목의 위쪽에 위치하지만, 그 후 후두가 내려가기 시작하여 네 번째 경추(頸椎)에서 일곱 번째 경추 사이에서 멈춘다. 이 변화는 숨 쉬고 말하고 삼키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리하여 인간만이 성대 위쪽의 확대된 인두강(咽頭腔)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1,0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호미노이드 계보가 고릴라, 침팬지, 호미니드로 분화한 이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 등 다양한 호미노이드들이 동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살게 된다. 4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 사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개골 아랫부분이 납작해지고 후두가 목의 위쪽에 위치하게 된 반면, 190만 년경의 호모 에렉투스의 후두는 현대인과 비슷한 위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분절음을 낼 수 있도록 두개골 아랫부분이 현대인처럼 곡선형을 띠게 되는 시기는 겨우 30만 년 전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대상의 미묘한 차이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마] 도덕적 개체주의는 개체들이 받는 처우가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 개체에 대한 적절한 처우는 그 개체가 어떤 집단의 성원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선 안 되고, 그 개체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차별 대우를 하기에 합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개체들 간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에게는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읽거나 쓰지 못하고 복잡한 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적절하다. 그러나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은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만큼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은 종류가 다르지 않다.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둘을 도덕적으로 구분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그 어떠한 종의 구성원들도 다른 종의 구성원들과 절대적인 차이는 나지 않으며,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사이에도 단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한다. 따라서 실상을 가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살고 있음을 보이기보다는, 무수한 방식으로 서로 닮은, 그리고 서로 다른 개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바] 어떤 존재가 이익(interests)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이 돌을 발로 찼다고 할 때 이 행동이 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돌의 이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반면 쥐를 발로 차면 그것은 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쥐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과 달리 동물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거나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또는 다른 존재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이나 정의감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존재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타 존재의 이익을 고려할지 평가할지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인종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성의 이익을 우위에 둬서 평등 원리를 위배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을 능가해도 개의치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종차별주의자이다.

[사] 맹자(孟子)는 인간의 본성이 개나 소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에게는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선한 본성이 있는 반면 개나 소 같은 동물에게는 먹고 생식하는 본능만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훗날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관념을 형성시켰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도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에 대해 얼마간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하늘이 만약 인의예지와 같은 선한 본성을 인간과 동물에 똑같은 수준으로 부여하였다면 누가 주인[主]의 입장이고 누가 하인[奴]의 입장인가? 하늘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이치가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또한 인의예지의 덕목을 강조했던 그는, 만물의 본성에는 세 갈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본성에는 세 가지 품질[三品]이 존재한다. 풀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에는 나고 자라는 생명은 있으나 지각(知覺)하는 능력이 없고, 들짐승과 날짐승 같은 동물에는 생명과 지각이 있으나 신령함[靈: 미묘한 인식 능력]과 선함[善: 가치 분별 능력]이 없다. 그에 비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신령함과 선함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아] 존재하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가에 따라 ‘영혼을 가지는 것’과 ‘영혼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혼과 자연적 신체의 합성물인 생물들이 가지는 능력은 영양 섭취 능력, 감각 능력, 욕구 능력, 장소 이동 능력, 사고 능력이다. 식물은 영양 섭취 능력만 가지지만 고착 동물은 거기에 감각 능력과 욕구 능력을 더 가지고, 이동 동물은 그 세 가지 능력에 장소 이동 능력을 더 가지며, 인간은 이에 더하여 사고 능력[理性]을 가진다.

감각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과 고통이 있고, 즐거운 대상과 고통스러운 대상이 있는 곳에는 갈망도 있다. 모든 동물들이 감각적 상상을 하는 반면에 계산과 추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숙고적(熟考的) 상상을 한다.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숙고적 상상을 바탕으로 다수의 심상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좋은 것[善]을 추구한다. 마치 하나의 공이 다른 공을 쳐 내듯이 인간은 동물적인 갈망을 넘어서 지성이 이끄는 희망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움직인다.

1 제시문 [가]의 논지를 따를 때, 제시문 [나]의 앤드루(Andrew)가 처할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 각각의 입장을 지지할 근거를 제시문 [라]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30점]

3 (1) 제시문 [마]와 [바]를 A, 제시문 [사]와 [아]를 B로 묶을 때, 인간에 대한 A와 B의 시각을 대비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서 동물의 복리를 주장하는 서로 다른 근거를 대조하시오. [20점]